

전국 첫 '초등 홈스쿨 체험박스' 인기

전남 6차산업 인증경영체 18곳 참여
쿠키집·어항 만들기 등 22개 프로그램

코로나 실내 활동 늘어 구입 문의 쇄도

전남도, 전남도교육청,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이하 전남6차센터)가 협업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학교 홈스쿨 체험박스'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홈스쿨 체험박스'는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체험에 필요한 준비물을 담은 체험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로 체험학습이 중단됨에 따라 초등학생에게 안전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면서, 체험객 감소로 힘든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경영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체험프로그램은 담양 파밍하우스 등 도내 6차산업 인증경영체 18개소가 참여해 쿠키집·어항·매실비누 만들기 등 22개 프로그램을 공급 중이며, 가격은 개당 8000원부터 3만3000원까지 종류별로 다양하다.

전남도 인터넷 쇼핑몰인 '남도장터'에서도 체험박스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서 체험박스에 대한 문의가 늘어 누구나 체험박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한 결과 134개교에서

2만4000여개의 프로그램을 신청했으며, 이에 따른 체험학습 예산으로 3억4500만원이 지원됐다.

전남도가 자체 조사한 결과 올 들어 1월부터 7월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의 체험활동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88% 정도 감소했지만, 8월 홈스쿨 체험박스 사업이 시작되면서 매출액이 12배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6차산업 인증경영체의 경영난 해소를 극대화하는 성공사례로 초등학교 홈스쿨 체험박스가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친환경 꾸러미, 초등학교 홈스쿨 체험박스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해 농업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현수막, 길거리 대신 시·군 홈페이지 거세요

전남도 내달부터 인터넷 게시대 운영

전남도는 날로 증가한 불법광고물의 최소화 위해 12월부터 '인터넷 현수막 게시대'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현재 도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1482개에 불과하고 설치된 현수막 중 공공기관 현수막이 많아 생계형 현수막의 경우 평균 15일, 최대 40일 이상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대기로 인해 옥외광고물을 불법으로 게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남도는 목포, 여수 등 11개 시·군 누리집에 현수막 게시대 사업을 추진, 오는 12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

선 3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두고 주민의견 수렴과 보완을 마친 후 이를 내년 3월 유관기관과 도내 전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기일수가 평균 5~10일 가량 단축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 현수막 게시대는 시·군 정책홍보 등 공공목적의 내용을 중심으로 게시가 이뤄지며 앞으로 활용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280만건, 올해 9월까지 350만건의 현수막과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 적극적인 정비사업으로 불법광고물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도시미관에 대한 인식부족과 업체 간 경쟁으로 인해 불법광고물이 증가 추세에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찾아가는 어촌현장 소통간담회

신안서 어업인 애로사항 청취
품종 연구개발 실적 공유하고
낙지 자원회복·김 품종개발 건의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최근 신안군 안좌면 어업인과 어촌현장 소통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에서 직접 어업인들을 만나는 등 소통장구를 넓혀가고 있다. <사진> 과학원의 연구 성과를 알리고 어업인들의 요구를 받아 추가 연구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24일 과학원에 따르면 해당 어업인과 수산단체, 행정기관이 만나 자유롭게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촌현장 소통간담회를 열고 있다. 11월 현장 간담회에는 정광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장과 20명의 어업인이 신안군 안좌면 북호마을 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해양수산과학원은 주요 품종 연구개발 실적 등을 어업인들에게 알렸다. 이와 함께 어업인의 건의사항인 ▲신안군 해역에 적합한 김 품종 개발 ▲전북 우량종자 개발 ▲낙지 자원회복사업 확대 ▲실시간 어장관측지점 추가 ▲수산자원관리수면 기간연장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한 시간을 가졌다.

이 중 낙지 자원회복 고밀도 양식시험은 자원증가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신안군 안좌면 안좌공동체와 함께 시험사업으로 시작됐다. 갯벌

에 일정 구획 지주목을 설치한 후 교접된 어미낙지를 방사해 자원량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정영규 안좌어촌계장은 "과학원에서 마을을 직접 방문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줘 매우 고맙다"며 "낙지 자원회복 시험을 확대해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영남 마진어촌계장은 "해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온, 용존산소 등을 측정해 어업인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주는 어장관측장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정광호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장은 "도내 시군별 해역에 적합한 김과 전복의 우수종자 개

발 등을 통해 어업인 소득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원이 꾸준히 연구개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장은 "호응이 매우 좋은 낙지 자원회복 고밀도양식시험의 확대와 어장관측장비 추가 설치는 어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며 "도 수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찾아가는 어촌현장 소통간담회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안도를 시작으로 장흥, 여수, 고흥, 신안 등 5차례만 실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자율관리어업 사업비 31억원 확보

전남도가 해양수산부의 '2021년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선정 평가'에서 지난해 대비 18개 공동체가 늘어난 29개 자율관리공동체가 뽑혀 31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난해 9개 자율관리공동체(사업비 10억8000만원)에 비해 사업비 기준 194.4%나 증가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번 선정된 공동체 중 전국에서 평가점수가 가장 우수한 여수 돌산 중앙자율관리공동체가 선정공동체로 선정돼 특별사업비 7억 4000만원을 배정받게 됐다.

사업비로 3층 규모의 수산물로컬푸드판매장과 수산물작업장, 저온저장·반건조 시설, 공동체 회원 교육장 등을 조성해 공동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공동체에 선정된 순천 용두자율관리공동체 등 28개 공동체는 수산종자 방류, 친환경 어구 구입, 어장관리선 건조 등 공동체 및 지역 특

성에 맞춘 사업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과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성과에 대해 전남도는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도우미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어업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 참여 등에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지난 2002년 어업인 스스로 지역에 맞는 자체 규약을 제정해 어업인 의견 개척 및 새어촌 운동으로 시작했으며, 전남지역에는 287개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다. 전남도는 자율관리어업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전국 처음으로 자율관리공동체 도우미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현재 여수시 등 9개 시·군에서 37명의 도우미를 채용해 공동체의 행정·기술지원 등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최근 3년간 '화목보일러' 화재 73건 발생

난방기기 화재 119건 중 61%

전남소방본부는 최근 기온 하강으로 화목보일러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년)간 겨울철(11월~2월) 도내 난방기기 관련 화재 총 119건 중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61.3%인 7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전기·가스·스토브 21건, 전기장판 19건, 기타 6건으로 확인됐다.

화목보일러 화재 원인 중 부주의가 58건(7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기계적 요인 14건(19.1%), 원인 미상 1건(1.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부주의의 세부 요인으로는 가연물 근접방치가 32건, 불씨-불꽃-화원방치가 17건이다.

화목보일러는 난방비 절약을 위해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사용빈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보일러 주변에 많은 땀감을 쌓아놓고 사용하면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날려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6일 화순군 사평면 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476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화목보일러의 불씨가 장작더미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화목보일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무 등 연료를 보일러와 2m이상 거리 두기 ▲지정된 연료를 사용하고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기 ▲연료를 넣은 후 투입구 닫기 ▲보일러 주변 소화기 비치하기 ▲연통 주변 가연물 놓지 않기 ▲3개월에 1회 연통 청소하기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최첨단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 가동

최근 나주시 혁신산업단지 내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이 신축돼 도축부터 경매까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신축된 공판장은 나주 왕곡면 나주혁신산업단지 내 7만400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면적 2만1000㎡ 규모로 구축됐으며, 최첨단 시설을 갖춰 도축을 개시했다. 일일 도축량량은 소 150마

리와 돼지 1천 200마리 규모며, 소 100마리와 돼지 800마리를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생축 수송 차량과 식육 운반 냉장차량의 출입구를 각각 분리해 터널식 소독시설 3개를 설치했다.

또 급냉터널과 여러 공간의 개별 예냉실이 설치돼 고기 품질 향상과 경락가격 상승이 기대된다.

경매장은 지육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지육에 관한 정보를 대형 모니터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첨단 경매시스템도 구축했다. 기존 나주축산물공판장은 지난 1991년부터 나주 운곡동에 위치해 29년간 도축장을 운영해왔다. 전남도는 노후화된 도축시설의 신축이전과 '제값 받는 축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 2016년 농협경제지주와 투자협약을 맺었으며, 4년만에 신축시설이 문을 열었다. 농협경제지주는 그동안 848억원을 투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